

INFERA

AI 자율형 시설안전·설비운영 플랫폼

인페라 AI 스마트 관리시스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발견하고
미래의 안전을 설계합니다

See the Invisible.
Prevent the Inevitable.



AI 기반
지능형 분석



다중 센서
실시간 감지



이상 감지
및 자동 알림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

THE GAP

법정 점검 사이, 설비는 침묵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의 점검 사이, 이상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그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363

일

1년 중 법정 점검이 현장을 보지 않는 날의 수



노후설비 부식 · 계측기

01

연 1~2회 점검

법정 성능점검 사이, 설비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02

사고는 공백에서

진동·균열·온도 이상, 실시간 데이터 없이는 사후에야 원인을 압니다.

03

의무는 있고 수단은 부족

인페라는 점검과 점검 사이를 잇는 운영 수단입니다.

02

THE LOOP

점검부터 설비교체까지, 하나의 순환구조입니다.

인페라는 점검·감지·판단·제어·출동·정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AI 자율형 시설안전·설비운영 플랫폼입니다. 센서 회사도, 관제 회사도, 성능점검 회사도 아닙니다.



성능점검 → 위험설비 선정 → 무철거 센서 설치 → 유·무선 하이브리드 → AI 게이트웨이 →
24시간 다중위험 감시 → AI 이상·고장예측 → 현장 영상 확인 → 자동경보·설비제어 →
유지관리자·전문업체 출동 → 조치확인 → 점검이력 기록 → 예방정비 → 설비교체·생애주기 관리

선형이 아니라 순환구조입니다. 설비교체는 다시 다음 성능점검으로 이어집니다.



신축 로비부터 지하 기계실까지, 인페라의 순환구조는 시설 전체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경쟁사는 여기서 멈춥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상을 감지하고 알림을 보내는 데서 끝납니다.

인페라는 조치까지 확인합니다

자동제어와 출동 연계, 그리고 정상화 여부 확인까지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기록은 다시 자산이 됩니다

모든 조치 결과가 다음 점검과 AI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WHY INFERA

여섯 가지 방식으로 순환구조를 완성합니다.



01

무철거 설치

휴대폰 크기의 센서를 설비에 붙이면,
그걸로 설치가 끝납니다.

02

유·무선 하이브리드

유선·무선·아날로그 백업까지
갖췄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기술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03

AI 고장예측

이상 징후와 설비 고장을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예측합니다.

04

현장 영상 확인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
영상으로 경보를 확인합니다.

05

경보 → 제어 → 출동

자동제어와 실제 출동까지 이어지는
대응 구조입니다.

06

전 생애주기 순환

모든 조치 결과가 다시 AI 학습과 설비
생애주기 데이터로 환류됩니다.

초기비용 없는 구독형 운영

성능점검+장비+플랫폼+관제+유지관리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초기 장비비용 없이 저렴한 월
렌트비로 유인·무인 운영 모두 가능합니다.

WHAT INFERA MONITORS

24종 이상의 센서를 AI가 융합 분석합니다.

개별 수치만 보지 않고 서로 비교해 이상의 원인을 찾습니다.



배관 부착형 센서



옥상 공조·냉각설비

화재·불꽃 · 정확한 위치 특정

침수 / 물탱크·정화조 넘침

공기질 및 유해가스

진동 및 구조 이상

모터·펌프·공조기 상태

전류·압력·온도

인체감지 모듈(인원·바이탈·낙상, 비카메라 AI)

- 기존 화재감지기는 울리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인페라는 정확한 발화지점을 특정하고, 필요 시 카메라 연동으로 실제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 물탱크·정화조 넘침은 변전실·기계실 정지로 이어지는 연쇄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페라는 한 지점이 아니라 전체 연결고리를 감시합니다.
- 노후설비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조기에 발견해, 에너지 비용과 긴급대응 인건비를 함께 줄입니다.

TECHNOLOGY PHILOSOPHY

현장을 아는 AI, 현장을 움직이는 기술.

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펌프가 어떤 상황에서 이상을 일으키는지는 오랜 현장 경험 없이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인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 현장 경험을 데이터와 AI 기술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감지 → AI 분석 → 위험등급 판단 → 자동제어 → 문자·앱·관제 알림 → 설비 상태 재확인 → 정상화 여부 판단 → 미해결 시 추가제어·현장출동 → 처리결과 저장 → AI 예지진단 및 다음 판단에 반영

센서 하나의 수치만 보고 단순히 장비를 켜고 끄지 않습니다. 여러 센서 정보를 함께 판단한 뒤 제어합니다.

물탱크·정화조 위급상황

수위 상승·유입 유량·펌프상태·밸브상태를 AI가 종합판단해 급수밸브 차단, 펌프 정지, 배수펌프 가동, 관리자 긴급 알림, 출동 연계까지 이어집니다. 조치 후 재확인해 정상화를 판단합니다.

가스 누출 위험

가스농도 상승 감지 시 AI가 위험등급을 판단해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배기설비를 가동합니다. 재측정으로 정상화를 확인하고, 안 되면 긴급경보·출동을 요청합니다.

공조·환기 AI 자동운전

온도·습도·공기질·전력사용량을 종합해 설비를 필요 이상으로 가동하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에너지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함께 줄고 설비 수명은 늘어납니다.

좋은 기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잘 작동하는 기술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BUSINESS & TEAM

신축부터 기존시설까지, 하나의 운영 회사입니다.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성능점검+장비+플랫폼+관제
+유지관리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 초기 장비비용 없이 저렴한
월 렌트비로 유인·무인 운영 모두
가능합니다.

신축 · 기존시설 모두 적용

신축 단계부터 적용하거나,
배선공사 없이 기존 건물에도 개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팀

40년 이상의 현장 엔지니어링
경험으로 입증되고 나로호(KSLV-I)
프로젝트에도 적용된 고도화된
독자 원천기술이며, 이 기술로
대한민국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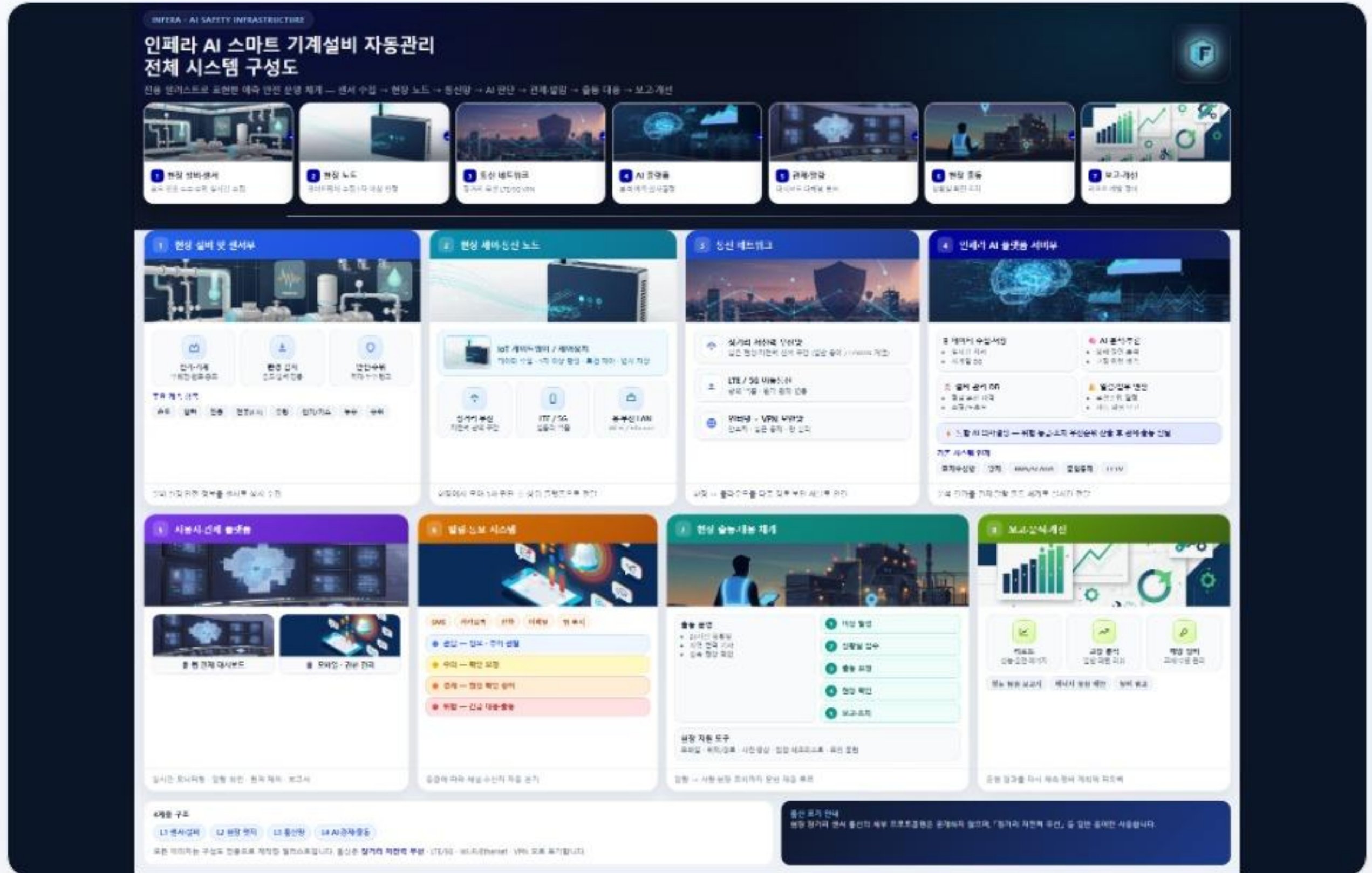
무료 현장 진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infera.kr · ceo@infera.kr

TECHNICAL DIAGRAM

센서부터 관제·출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습니다.

현장·센서·노드부터 통신망, AI 판단, 관제·알람, 출동·대응, 보고·개선까지 — 인페라의 순환 플랫폼을 하나의 구성도로 정리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과 세부 알고리즘 등 상세 기술은 별도 문의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COVERAGE

현장 설비·센서부터 보고·개선까지 8개 계층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INTEGRATION

화재수신반·방재·BMS/SCADA·출입통제·CCTV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NOTE

보안을 위해 상세 통신·하드웨어 사양은 공개하지 않으며, 도입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